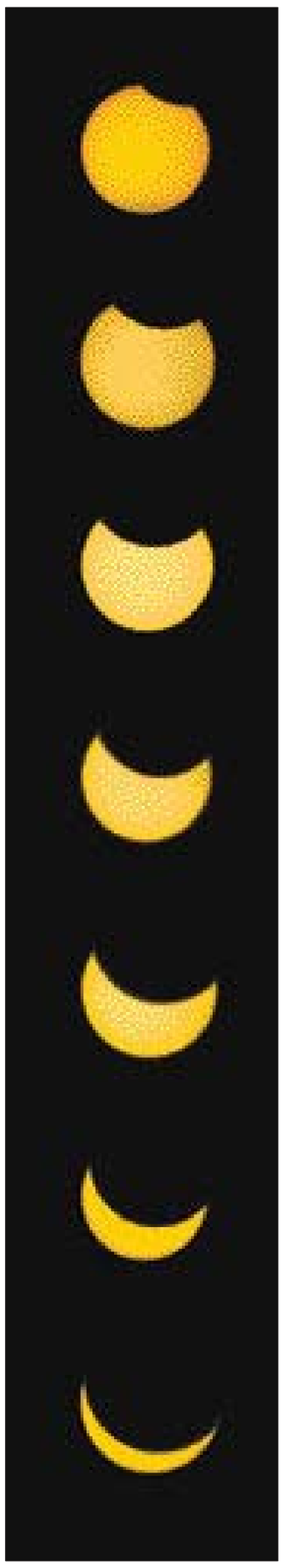
해 삼킨 달…금세기 최대 장관 흥분

61년만에 가장 긴 개기일식…광주·전남 곳곳 관측 열기



22일 오전 9시30분 달이 태양을 삼키기 시작했다. 태양을 가리기 시작한 달은 10시50분께 태양의 86.6%를 삼켜 절정을 이뤘다. 금세기 최대 '우주 쇼'는 정오께 막을 내렸다. 곡성 섬진강 천문대에서 9시50분 부터 10분 간격으로 촬영한 개기일식.
/곡성=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금세기 최장의 '개기일식쇼'가 펼쳐진 22일 광주·전남 시·도민들은 달이 해를 가리는 신기한 광경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맹위를 떨치던 장마전선도 '일식'을 위해 양보한 듯 맑고 화창한 날씨 속에 공개관측 행사장 등에는 많은 시민들이 몰려 일식을 관측했다.

시·도민들은 낡은 사진 필름이나, 셀로판지 등 저마다 준비한 물건으로 눈 앞에 대고 고개를 들어 태양이 초승달처럼 얇아지는 장관 속으로 빠져들었다.

일식이 시작된 오전 9시50분께 광주시 동구 충장로에서 길을 걷던 시민들이 갑자기 어두워진 하늘을 보고 길을 멈춰서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길을 걷던 시민들 틈에서 "우와, 정말 가려졌다. 신기하다", "이게 일식이구나"하는 등 탄성과 환호가 터져 나왔다. 광주시 동구 충장로 등 도심지역에 위치한 사무실 외부 계단 등에서는 카메라를 준비해 온 일부 시민들이 일식을 사진으로 담기 위해 연방 셔터를 눌러댔다. 일부는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로 일식장면을 담아두려고 태양을 향해 휴대전화를 가리키기도 했다.

22일 곡성 섬진강 천문대에서 열린 '개기 일식 관측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태양관측 필터를 렌즈에 부착한 망원경을 통해 일식을 지켜보고 있다.

전남지역 2곳의 천문대에 마련된 '개기 일식 공개 관측'행사에는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가족단위의 참가자 등 수백명이 몰려들었다.

곡성군 섬진강 천문대에는 이날 200명 이상의 참가자가 몰려 일식의 장관을 지켜봤다. 이날 행사장에는 천문대 측이 참가자 150여명에게 태양 관측용 필터를 무료로 나눠주는 등 편의를 제공했다.

순천만 천문대에도 1천500여명의 참가자들이 몰려 태양과 달이 선사하는 '경이로운 순간'에 빠져들었다. 천문대 측은 관측행사 참가자들에게 태양 관측용 보호기구를 주고 생태관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밀려드는 손님을 맞았다. 곡성 섬진강 천문대 장형규 대장은 "우주가 주는 경이로움에 참가자 모두가 넋을 잃었다"며 "장마기간이라 흐리거나 비가 올 줄 알았는데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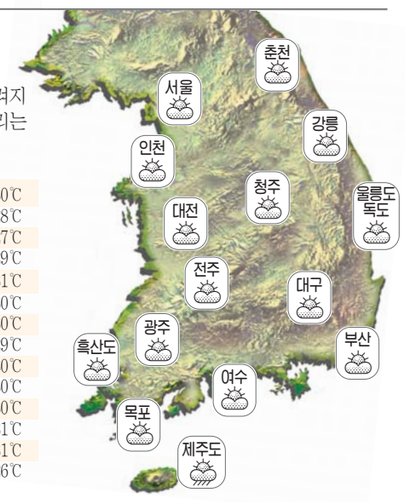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35분 / 해짐 19시 43분 — 달뜸 06시 37분 / 달짐 20시 32분

몰려오는 장마구름

맑은 후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겠다. 밤부터 장맛비가 내리는 지역도 있겠다.

광 주	맑은 뒤 흐림	20/30℃
목 포	맑은 뒤 흐림	20/28℃
여 수	맑은 뒤 흐림	22/27℃
완 도	맑은 뒤 흐림	20/29℃
구 례	맑은 뒤 흐림	20/31℃
해 남	맑은 뒤 흐림	20/30℃
장 흥	맑은 뒤 흐림	20/30℃
고 흥	맑은 뒤 흐림	20/29℃
순 천	맑은 뒤 흐림	21/30℃
영 광	맑은 뒤 흐림	20/30℃
진 도	맑은 뒤 흐림	21/30℃
전 주	맑은 뒤 흐림	20/31℃
남 원	맑은 뒤 흐림	19/31℃
흑산도	맑은 뒤 흐림	20/26℃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0.5~0.5m
먼바다	동~남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1.0~1.5m
먼바다	동~남동	1.0~1.5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높음	경고	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1.0m
먼바다	남동~남	1.0~1.5m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1.0~1.5m
먼바다	동~남동	1.0~2.0m

	밀물	썰물
목포	03:01 15:05	08:18 20:21
여수	09:51 22:25	03:48 15:53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금(24)	토(25)	일(26)	월(27)	화(28)	수(29)
날 씨						
최저/최고	22/27	21/29	21/30	22/31	22/30	23/31

설성현씨 박사학위 논문

전남지역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64%

형편 어려워 '정책서비스' 이용 못해

전남지역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의 상당수가 지자체나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이주민 대상 정책서비스'를 어려운 생활형편 때문에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언론인 출신인 설성현씨 최근 발표한 전남대 박사학위 논문 '다문화가정 정책서비스의 고객적합성 연구'를 통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서비스를 이주여성들의 생활수준 및 욕구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씨가 전남지역 이주여성 2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주민 대상 정책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이주여성들의 27%가 '여건이 맞지 않아서'라고 답했으며 26.4% '생활에 바빠서', '관련 정보를 알지 못해서(25.3%)',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서(10.9%)', '가족의 비협조(10.4%)' 등의 순이었다.

이 같이 이주여성들의 63.8%가 가정 형편이나 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정책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주여성들에게 제공되는 정책서비스는 한국어나 한국문화, 직업교육, 양육상담, 문화간 상호이해 등 다문화가정에게 상당히 유익한 내용들이다.

이처럼 이주여성들의 최우선 과제가 생계유지인 만큼 정책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거나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창출해야할 것으로 분석됐다.

설씨는 또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했다는 응답도 25.3%나 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에 전국 첫 어린이 영어 도서관

내달 학생교육문화회관에

전국 첫 어린이 영어 전용도서관이 다음달 광주에 문을 연다.

2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영어를 재미있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춘 영어 전용도서관이 다음 달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 들어선다.

440여㎡ 규모의 영어 전용도서관은 자료 구입과 시설 구축 등에 3억5천만원이 투입됐다. 영어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말하기, 쓰기, 읽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영어를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과 기자재가 갖춰졌다.

특히 영어 발표 무대와 드라마 감상 공간을 비롯 수준별·주제별 영어책, 백과사전, 영상자료 등 9천여점을 갖췄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연구중심대학' 시작부터 삐걱

광주과기원 등 13개大 신입생 무더기 미달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사업으로 광주과기원과 순천대 등 전국 13개 대학에 신설된 26개 학과·전공이 첫 신입생을 뽑았으나 사실상 모두 대량 미달사태를 빚었다.

이에 따라 5년간 8천250억원의 혈세를 투입해 첨단·학제간 연구분야를 키우겠다는 초대형 국책 교육사업이 '용두사미'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22일 대학가에 따르면 올해 2학기 운영을 위해 5월부터 첫 신입생 전형을 한 순천대는 인쇄전자공학과 석사과정 16명 모집에 4명만이, 박사 8명 모집에 5명만이 지원해 정원에 크게 미달했다.

광주과기원도 나노바이오재료전자공학과 학생을 모집했지만 크게 미달했다. 전남대는 오는 2010학년도부터 바이오에너지공학과(학사 30명, 석·박사 30명)를 운영할 예정이지만 학과에 대한 홍보 및 인지도 미흡으로 미달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대의 WCU 신설 모집단위 7곳은 모두 석·박사과정 지원자 수가 정원에 미달했고, 평균 경쟁률도 0.3대 1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

연세대 계산과학공학과의 석·박사과정 경쟁률은 각각 0.35대 1, 0.2대 1이었으며, 융합오믹스·의생명과학과 지원율은 석·박사과정 모두 0.13대 1에 불과했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WCU사업을 최종 확정한 지난 해 12월 말 이후 수개월 만에 신입생을 모집하는 등 사업 자체를 서둘러 학과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남구 효사랑 영어캠프

광주시 남구는 서부교육청, (사)글로벌비전 청소년교육연합과 함께 27일부터 1주일 동안 봉선중학교에서 관내 초·중학생 250여명이 참가하는 '2009 효사랑 영어교육캠프'를 연다.

청소년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캠프에는 원어민 자원봉사자 16명이 참여한다. 캠프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레벨테스트를 거쳐 각 반에 배정되며, 1주일 동안 원어민 교사와 영어로 대화를 나누고, 경험을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국제 감각도 기를 수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도시공사 시설 이용 82%가 만족

광주시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고객 10명 중 8명이 시설관리 및 운영 등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시도시공사는 "올 상반기 광주 실내수영장 및 영락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고객 500명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82%가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보통'은 15%, '불만'은 3%였다. 시도시공사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서비스안내, 서비스결과, 직원응대친절도 외 20개 항목을 조사했다. /윤현석기자 chadol@